

<인문·사회계열(국어, 도덕, 사회)>

[숙명여자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1교시) / 문항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생활과 윤리, 통합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60분	

2. 문항 및 자료

<가>

“애들아, 너희 말을 엿들은 걸 용서해 주렴. 하지만 너희가 바로 내 뒤에 있었기 때문에 듣지 않을 수 없었다. 피터, 조금 전 고든한테 했던 얘기, 다른 친구들한테도 해 주겠니?”

피터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제가 만약 배우가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하고 말이에요.”

“그래. 넌 고든에게 최고의 기회를 갖기 위해 미국에 가야겠다고 말하고 있었지.” 루시 선생님이 말했다.

피터는 다시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루시 선생님은 이제 우리 모두를 향해 눈길을 돌리며 말했다. “나쁜 뜻에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건 나도 안다. 하지만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줄곧 들려오고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게 허용되고 있는데, 그건 옳지 않다. 다른 누군가가 너희한테 얘기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말해 주마. 내가 볼 때 문제는 너희가 들었으되 듣지 못했다는 거야. 너희는 사태가 어떻게 될 건지 듣긴 했지만, 아무도 진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두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감히 말하건대 난 그렇지 않아. 너희가 앞으로 좋은 삶을 살려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을 알아야 하고, 그것도 제대로 알아야 해. 너희 중 아무도 미국에 갈 수 없고, 너희 중 아무도 영화배우가 될 수 없어. 또 일전에 누군가가 슈퍼마켓에서 일하겠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너희 중 아무도 그럴 수 없어. 너희 삶은 이미 정해져 있다. 성인이 되어 중년이 되기도 전에 너희는 기증을 시작하게 된다. 그것이야말로 너희 각자가 만들어진 이유지. 너희는 비디오에 나오는 배우들과 같은 인간이 아니야. 심지어 나와도 다른 존재들이다. 너희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이 세상에 왔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너희의 미래는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얼마 안 있어 헤일섬을 떠날 것이고, 머지않은 날에 첫 기증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 올 거야.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앞으로 좋은 삶을 살려면, 너희 모두는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들 앞에 어떤 삶이 놓여 있는지 알아야 해.”

루시 선생님은 우리들이 실제 인간을 모델로 하여 인간에게 장기를 기증하기 위해 태어난

클론이라는 것, 헤일섬은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을 위한 학교라는 것, 기증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얼마간 간병인 일을 하게 된다는 것, 일반적인 기증의 간격, 회복 센터에서의 생활 등 ‘도너’(donor)로서의 운명에 대해 설명했다.

〈나〉

생명공학 분야의 과학자들은 모두 인간의 장애나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려면 반드시 인간의 몸과 마음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야 인간의 몸과 마음을 개선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힘으로 더 뛰어난 학습 능력과 기억력, 강한 근육, 그리고 더 긴 수명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자신을 개조하는 이러한 힘이 사회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모두가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 2000년 조지 부시 대통령은 생명공학 분야의 문제에 대해 조언해 줄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위원회는 2004년 《치료의 한계를 넘어》라는 보고서에서 유전자 조작 및 복제 기술은 생명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부모 자식 간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붕괴시킨다고 주장했다. 인간의 노화를 늦추는 것은 나이 든 사람들이 계속 권력에 집착하도록 만듦으로써 사회적 정체를 유발할 것이며, 또 인간의 능력을 증진시키는 기술은 안전성이 보장돼 있지 않고 빈부 격차를 더욱 넓혀 분배 정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자문위원회는 주어진 자연적 상태를 존중해야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오만이며,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론할 수 있다. 우선 인간의 능력 강화를 주장하는 데에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 치료와 능력 강화는 밀접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그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을 수 없다. 알츠하이머병, 심장병, 암 등에 대한 치료와 우리 자신의 능력을 증강하는 연구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게다가 생명공학 연구를 실제적으로 금지할 수도 없다. 만일 우리의 신체 능력을 강화하고 생명을 연장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약물이 발견된다면 세상의 어떤 규제도 그 약의 확산을 막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논쟁의 핵심에는 ‘자유’의 문제가 놓여 있다. 인간의 심신을 바꿀 권리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있는가, 아니면 국가에 있는가? 민주 사회에서 그런 결정은 각 개인이 하는 것이지 국가가 하는 게 아니다. 서구 민주주의는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미국의 독립선언도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며, 조물주에 의해 양도할 수 없는 천부적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돼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바꾸고 개선하려는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우리 모두가 지닌 근본적 특징 중의 하나다. 인간이란 종은 지금까지 늘 더 강하게, 더 현명하게, 더 오래 살 방법을 찾아 왔다.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백신 접종이나 수혈 등도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부자연스럽거나 부도덕하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새로운 발견들은 종종 우리의 정체성, 우리 삶의 의미에 대한 관념을 뒤집어엎는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갈릴레오의 발견이 우주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위상에 도전하였듯이, 다윈의 진화론이 인간의 자연적 위상에 대한 관념을 바꾸었듯이, 이제 과학은 현재의 다양한 윤리적 문제와 직면하면서도 인간의 정신과 육체가 고정돼 바뀔 수 없다는 믿음에 도전하고 있다.

<다>

‘사람-되기’는 종종 ‘동물-되지 않기’로 이해되었다. 동물은 생각이 없고, 말을 못하고, 감각은 단순하며, 자연의 법칙과 타고난 본능에 충실하게 순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규정된다. 문명과 발전의 관점에서 ‘사람-되기’는 그런 동물로부터 뛰어나오는 일이었다. 교육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동물에서 인간적인 것을 끄집어내는 일이었다. 이성의 존재, 말로 하는 정치, 그것이 곧 ‘사람-되기’의 조건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동물은 결여의 존재로 표상된다. 동물은 이성이 없고, 말을 못하며, 법과 윤리와 도덕이 없다. 그래서 그것들은 정치도 없다. ‘그것들’은 이름 없는 자들을 부르는 말이었고, 사람이 덜된 존재를 부르는 말이었다. 여자와 아이들과 원주민들과 노예들이 그렇게 불렸다.

이러한 ‘동물과 인간’이라는 구도는 어떻게 해체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동물이면서도 정치적 주체인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자크 데리다의 ‘짐승과 주권자’ 논의는 ‘동물과 인간’의 생물학적 구분을 정치적 관계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짐승은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에 의해서 창조된다. 조르조 아감벤의 ‘벌거벗은 생명’도 시민에서 짐승으로 환원된 존재다. ‘벌거벗음’이란 시민의 보호복인 법이라는 옷이 벗겨진 자를 의미한다. 두뇌와 영혼과 마음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법적 권리를 박탈당한 자는 한 마리의 짐승이 될 뿐이다. 동시에 이것은 역설적으로 주권이 짐승에 의해 탄생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 수 있는 자만이 주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도 시민권도 없는 자, 자기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자, 그들이 곧 짐승이다. 짐승은 인간이 아닌 동물이 아니라 정치적 권리가 없는 모든 무권리의 존재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인간도 짐승도 아닌 혼성체들이 출현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어볼 수 있게 된다. 현대 세계의 주권자는 누구이며, ‘시민인 인간’과 ‘짐승인 인간’ 사이에서 나는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 아마도 완전한 시민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존재는 이미 인간보다 동물에 더 가까울 것이다.

‘짐승인 인간’에 가해지는 ‘시민인 인간’의 착취 관계를 해체하고 새롭게 관계를 재구성하려면, 그것은 누구의 해방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 당연히 가장 최종적인 피착취자, 정치적 최약자들과 무권리자, 가장 동물에 가까운 존재, 동물 그 자신으로부터일 것이다. ‘동물-되기’는 바로 그 동물로서, 동물과 함께 해방되기 위한 모든 동물적 존재의 실천론이라고 할 수 있다.

<나>를 통해 <가>의 문제적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다>의 논지에서 비판하시오. (1,000±100자)

3. 출제 의도

이 문제는 과학기술의 인간중심주의와 윤리의 문제에 대해 묻고자 하였다. <가>는 가즈오 이시구로 『나를 보내지 마』에서 인용한 것으로, 생명공학 기술로 탄생한 인간 클론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병든 인간의 치료를 목적으로 탄생한 클론은 보통의 인간처럼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자유를 가지길 원하지만, 인간은 그 클론들이 인간과 같은 자유와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생명공학 옹호론이다. 그에 의하면 생명공학 기술은 인간의 치료라는 실질적인 의미에서도, 자유 등 천부인권적인 의미에서도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다>는 이와 같은 관점을 인간중심주의로서 비판하고 있다. 인간은 천부인권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주권자인 인간에 의해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존재로서 동물이 종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렇기에 인간의 주권은 역설적으로 동물에 의해 탄생한다는 것이

라고 주장한다.

결국, <가>의 인간 클론은 과학기술이 인간중심주의라는 관념 속에서 현실 사회의 윤리적 제한을 넘어설 때 창조되는 존재로서, <다>의 논지로 볼 때 그러한 클론은 인간에 종속된 비주체적 인간이며,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인간, 즉 ‘동물’로서, 역으로 과학기술의 인간중심주의를 본질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존재로서 파악할 수 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중 [선택교육과정] 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중 [선택교육과정]의 일반과목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성취기준 1	(1) 문학의 본질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평가기준 (중) 문학의 인식적·윤리적·미적 기능을 중심으로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한 문학의 효용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성취기준 1	(2) 생명과 윤리 [12생윤02-02]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여러 윤리적 관점을 비교·분석하고, 생명 복제, 유전자 치료, 동물의 권리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설명하며 자신의 관점을 윤리 이론을 통해 정당화할 수 있다. 평가기준 (중)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여러 윤리적 관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할 수 있으며, 생명 복제, 유전자 치료, 동물의 권리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말할 수 있고, 자신의 관점을 윤리 이론을 통해 말할 수 있다.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2) 생명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 1	(나) 제시문 (다) 제시문	(가) 제시문 (나) 제시문 (다) 제시문

3. 사회과 교과과정

과목명: 통합 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1)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제시문 (다)
	[10통사01-01]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한다. 평가기준 (중)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요청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나를 보내지 마	가즈오 이시구로	민음사	2009	117-119	제시문(가)	○
인간의 미래	라메즈 남	동아시아	2007	6-14	제시문(나)	○
‘사람-되기’와 ‘동물-되기’	채효정	창비	2020	18-23	제시문(다)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 N	2017	56-65	제시문(나), (다)	

5. 문항 해설

-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가즈오 이시구로, 김남주 옮김, 『나를 보내지 마』, 민음사, 2009, 117-119쪽
 <가>는 가즈오 이시구로 『나를 보내지 마』에서 인용한 것으로, 이 소설은 생명공학 기술로 탄생한 인간의 클론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인용 부분은, 피터와 고든 등 헤일섬 학교의 학생들은 이러한 클론들로서 그들은 병든 인간들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기를 기증해야만 하는 운명을 지니고 있다. 이 클론들도 보통의 인간처럼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자유를 가지길 원하지만, 루시 선생님은 이 클론들은 인간에게 장기를 기증할 목적으로 탄생한 존재이기에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지 못하며,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자유를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나>: 라메즈 남, 『인간의 미래』, 동아시아, 2007, 6-14쪽

<나>는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논쟁을 설명하고 있다. 유전자 조작 및 복제 기술 등의 생명공학 기술에 대해 반대하는 측은 안정성, 사회적 정의(분배), 윤리성 등을 근거로 이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하지만, 찬성하는 측은 이 기술이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발전한 것으로 실질적이며, 이념적인 면에서도 천부인권처럼 인간이 자신의 심신을 결정할 자유라는 권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인간이란 종이 자신의 심신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만 과학은 항상 당대의 다양한 윤리적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는데 과학은 항상 그러한 윤리에 도전해 왔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다>: 채효정, 「‘사람-되기’와 ‘동물-되기’」, 『문학3』 2020/#2, 창비, 18-23쪽

<다>는 인간중심주의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데리다는 동물이란 자연스럽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주권자인 인간에 의해 종속된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며, 마찬가지로 논리로서 아감벤은 인간이 동물로 환원되는 순간을 설명하면서, 인간도 인간이 지닌 모든 법적 권리를 박탈당하면 동물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인간의 주권은 역설적으로 동물에 의해 탄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일방적인 착취 관계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동물은 인간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간중심주의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논제의 구성

문제는, <가>의 상황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나>를 통해 설명하고, 그와 같은 과학기술의 인간중심주의에 대해 <다>의 논지를 찾아 비판하는 이단 구조로 출제하였다. 우선 <가>를 통해 인간 클론이 인간이면서, 생명의 존엄성이나 주체성 등 인간의 권리를 박탈당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점을 기술한 후, 그것이 <나>에서 주장하는 생명공학의 연장선상에서 인간중심주의적인 윤리의 문제와 결부된다는 점을 지적한 후, <다>에서 말하는 인간중심주의 비판의 관점에서 이에 대해 분석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가를 보고자 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p>* 답안의 기본 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이 질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가 - 답안의 구성이 논리적인가 -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표현력이 있는가 <p>* 논제에 대한 답안의 내용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p> <p>① 제시문 (가)의 문제적 상황을 포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일섬 학교의 학생들은 인간의 클론으로서 인간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장기를 기증해야만 하는 운명 	

- 이 클론들도 인간처럼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자유를 원하지만, 인간은 이 클론들은 인간에게 장기를 기증할 목적으로 탄생한 존재이기에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지 못하며,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자유를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

② 제시문 (나)의 생명공학 옹호론을 파악한다.

- 생명공학 옹호론자들은 유전자 조작 및 복제 기술 등의 생명공학 기술은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발전한 것으로 실질적이며,
- 이념적인 면에서도 천부인권처럼 인간이 자신의 심신을 결정할 자유라는 권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 인간이란 종이 자신의 심신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함

③ 제시문 (다)는 이와 같은 관점을 인간중심주의로서 비판하고 있다.

- 데리다는 동물이란 자연스럽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주권자인 인간에 의해 종속된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며,
- 아감벤은 인간이 동물로 환원되는 순간을 설명하면서, 인간도 인간이 지닌 모든 법적 권리를 박탈당하면 동물이 된다고 주장. 그렇기에 인간의 주권은 역설적으로 동물에 의해 탄생한다는 것.

④ (나)를 활용하여 (가)의 문제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가)의 문제상황은 인간 클론이 인간의 권리를 가지는가 아닌가의 대립
- (나)의 생명공학 옹호론자들의 주장, 그 중에서도 과학은 당대의 윤리에 끊임없이 도전하였다는 지점, 하지만 그 결과가 인간이면서 인간의 권리를 박탈당한 존재를 생산하고 말게 되었다는 역설을 지적.

⑤ (다)를 활용하여, (가)의 문제상황과 (나)의 생명공학 옹호론을 동시에 비판할 수 있다.

- (나)의 과학기술은 철저히 인간중심주의의 사고에만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
- 과학이 당대의 윤리의 문제와 싸우면서도 그 한계를 넘어왔다는 미명하에, 인간을 동물로 환원하는 인간의 착취성이 감추어질 때, 인간 클론은 출현할 수 있는 것
- 이렇게 출현한 (가)의 인간 클론은 비주체적 인간이며,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인간, 즉 '동물'로서, 철저히 인간에게 종속된 '짐승인 인간'이다. 이러한 인간과 동물의 일방적인 착취 관계는 해소되어 동물은 인간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간중심주의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다)를 활용하여 말할 수 있음.

<유의 사항>

- 글자 수 300자 이내의 답안은 0점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고, 단락 구분 및 정서법이 정확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고, 단락 구분 및 정서법이 부정확한 경우	2등급
1등급과 동일하되, ⑤가 부족한 경우	3등급
2등급과 동일하되, ⑤가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은 충족하고 있으나, ④, ⑤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는 충족하고 있으나, ③, ④, ⑤가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만 기술하고, ④, ⑤가 누락된 경우	7등급
①, ②, ③ 의 파악이 부정확한 경우	8등급
300자 이하	9등급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7. 예시 답안

(가)는 생명공학 기술로 탄생한 인간의 클론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장기 기증을 목적으로 태어난 클론은 인간처럼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자유를 가지길 원하지만, 인간은 이 클론들은 인간에게 장기를 기증할 목적으로 탄생한 존재이기에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지 못하며,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자유를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은 (나)에서 주장되는 생명공학의 옹호론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유전자 조작 및 복제 기술 등의 기술은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발전한 것으로 실질적이며, 이념적인 면에서도 이는 개인의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인간이란 종이 자신의 심신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과학은 항상 당대의 윤리적 문제에 도전해 왔다고 주장하는데, (가)의 인간 클론은 현실 사회가 금지하는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여 과학기술이 인간의 치료라는 목적 하에 인간 클론을 허용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사회를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다)는 이와 같은 관점을 인간중심주의로서 비판하고 있다. 동물이란 자연스럽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주권자인 인간에 의해 종속된 존재이며, 마찬가지로 논리로서 아감벤은 인간이 동물로 환원되는 순간을 설명하면서, 인간도 인간이 지닌 모든 법적 권리를 박탈당하면 동물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인간의 주권은 역설적으로 동물에 의해 탄생한다는 것이다.

(다)의 관점에서 볼 때, (나)의 과학기술은 철저히 인간중심주의의 사고에만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할 수 있다. 과학이 당대의 윤리의 문제와 싸우면서도 그 한계를 넘어왔다는 미명 하에 인간을 동물로 환원하는 인간의 착취성이 감추어질 때 인간 클론은 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출현한 인간 클론은 비주체적 인간이며,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인간, 즉 ‘동물’로서, 철저히 인간에게 종속된 ‘짐승인 인간’이다. 이러한 인간과 동물의 일방적인 착취 관계는 해소되어 동물은 인간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간중심주의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26자]

<인문·사회계열(국어, 도덕, 사회)>

[숙명여자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1교시) / 문항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윤리와 사상, 정치와 법, 세계사
	핵심개념 및 용어	민주주의, 다수의 횡포, 공론조사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60분	

2. 문항 및 자료

<문제 2> (55점)

〈가〉

“철학자의 성향을 타고 난 사람이 적절한 가르침을 받게 될 경우에는 제대로 자라서 온갖 ‘훌륭함’(arete)을 갖추게 될 것이 필연적이지만, 만약에 적절하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한다면, 어떤 신이 구원해 주지 않는 한, 모든 면에서 정반대의 상태에 이를 걸세. 다중(多衆) 자신이 ‘막강한 교사들’이어서, 젊은이거나 노인이거나, 또는 남자거나 여자거나, 자신이 바라는 사람들로 교육하고 만들어내지 않겠는가?”

“언제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야 많은 사람이 민회(民會)나 법정, 극장이나 그 밖의 다른 어떤 집회에 떠들썩거리며 모여 앉아서, 발언과 행동 가운데서 어떤 것은 비난하고 어떤 것은 칭찬할 때이겠는데, 어느 경우든 그들은 극단적으로 나가며, 고향을 지르며 박수를 쳐대네. 게다가 주위 압박이 그걸 울리게 하여 비난과 칭찬의 소음을 두 배로 증폭시키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이들의 심정은 어떻게 되겠는가? 어떤 교육이 그들을 위해서 버텨주어 그와 같은 비난이나 칭찬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겠는가? 또한 같은 것을 두고서도 아름다운 것이라거나 추한 것이라 말하는 일을 어떤 교육이 막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되지 못할 게 다분히 필연적입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교사를 자처하는 다중은 말로써 설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동으로 강제적인 제재를 가하네. 이들은 설득되지 않는 사람의 시민권을 박탈한다는 것을 자네는 모르고 있는가?”

“분명히 그런 심한 짓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떤 소피스트가 또는 어떤 개인이 말로써 이들과 맞서거나 제압할 것이라고 자네는 생각하는가?”

“아무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는커녕, 실은 그런 시도조차도 어리석은 짓이 될 걸세. (……)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소피스트들 가운데 누구도, 다중이 모였을 때 갖게 되는 교조적인 믿음(dogma)과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는 않으며, 또한 이를 도리어 지혜(sophia)라 일컫는다는 데 대해서 말일세. 이 신념들과 욕망들 가운데 어느 것이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거나 추한 것인지, 또는 좋은 것이거나 나쁜 것인지, 그리고 또한 옳바르거나 옳바르지 않은 것인지를 전혀 모르면서도, 이 모든 걸 다중의 의견에 따라 이름 짓는데, 이들이 기뻐하는 것들은 좋은 것이라고 일컫는 반면에, 성가셔하는 것들은 나쁜 것이라고 일컫네. 그러니 이상한 교육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현대 문명이 전반적으로 그러하듯이, 대의(代議)민주주의 정치도 집단적 평범성을 향해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공동체 내의 교육 수준이 낮은 계급의 수준에 주요 권력을 두게 하려는 개혁 시도가 더욱 빈번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전체 인구의 다수를 접하는 민중에게 선거권이 확대됨에 따라 더욱 뚜렷해졌다. 사람들은 자기 계층 사람을 대표로 선출하기 마련인데, 그런 까닭에 지역 선거구의 다수 득표자들로 구성되는 의회의 다수는 민중 출신으로 채워질 것이다. ‘모두’가 아닌, ‘다수’만을 대표하는 민주주의 정치에서 교육받은 소수는 대의기구에 진출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주장을 펼 기회조차 갖기 어렵다. 그런데 의회에서 우수한 자가 견해를 발언하는 것과 발언하지 않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고대 민주주의에서 유능한 인물은 그 재능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에게는 발언할 연단이 개방되어 있었다. 유능한 인물이 공동체를 향해 공개적인 발언을 하는 데 누구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날 대의제로 운영되는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의 옹호자들조차 고대 그리스의 데모스테네스같이 유능한 인물이 평생토록 의회에 진출하지 못해서 끝내 나라를 구할 연설을 하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만약 단 몇 명이라도 이 나라의 최고 지성이 대의기구 내에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비록 나머지 의원들이 평범한 지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두 명의 최고 지성은 의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뚜렷이 드러내며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는 대중의 여론과 감정이 최고 지성들에게 적대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제 민주정체는 권력을 영구화하려는 다수의 속성에 맞서 소수가 견해를 펼칠 수 있는 사회적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 소수의 견해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좋은 방법은 지역별 다수 득표자만으로 구성되는 단순 대의제에 일정 숫자의 교육받은 소수가 비례대표로 의회에 진출하는 것이다. 지성과 능력을 갖춘 도덕적 세력으로서 교육받은 소수는 의결 과정에서 그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의회가 다수 여론의 압력을 이겨내고 대신 이성과 정의 안에 머물게 하여 민주적 의사 결정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민주정체의 민중은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적이고 인격적인 지도자를 구할 수 있고, 현대 민주주의는 페리클레스같은 우수한 지성으로 구성된 집단에게서 상시적인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다>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는 《민주주의와 공론조사》(1991)에서 피시킴이 처음 제안

했는데, 갈등 사안을 두고 대립하는 찬반 양측의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숙의(熟議) 과정을 갖게 한 다음에 양측의 의견 변화를 측정하는 조사 기법이다.

피시킨의 공론조사는 민주적 의사 결정의 핵심 요건인 정치적 평등과 숙의를 모두 충족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는 않았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대표성과 객관성을 갖게끔 구성된 공론조사 시민참여단은 전문가 설명, 조별 토론 등의 숙의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 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얻게 된다. 일반적인 여론조사가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데 비해, 공론조사는 숙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심층적인 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론화 과정에서 정부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 견해가 정책결정에 반영되는 민주적인 소통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론조사는 대의민주주의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것을 보완하는 '예외적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

피시킨이 제안한 공론조사는 크게 네 단계를 거친다. 첫 단계는 주제에 대한 1차 여론조사이고, 두 번째 단계는 1차 여론조사 응답자 가운데에서 성, 연령, 지역별로 대표성 있는 토론 참가자(시민참여단)를 선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시민참여단을 한 자리에 모아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 강연과 상호 토론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밟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심도 있는 학습과 토론을 위해 1박 2일 이상의 합숙이 권장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와 동일한 질문으로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2차 조사 결과는 정보 습득과 토론이라는 숙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결과이다. 여기서 도출된 2차 여론조사 결과가 1차 여론조사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공론조사의 핵심이다.

2.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고, <다>의 '공론조사'가 <나>에서 제기된 문제와 그 대안의 한계를 모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절한지 평가시오. (1,000자±100자)

3. 출제 의도

- <문제 2>는 수험생 스스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민주주의를 원리 수준에서 분석하여 내부적 위협 요소를 찾고, 이를 민주주의 발전 역사에서 극복하기 시도했던 노력들을 점검한 후, 가장 최근에 각광 받고 있는 대안의 가치와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출제 의도를 두고 있다.

- <문제 2>는 수험생의 다음과 같은 능력을 측정하려 한다. (1) 각 시대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정치학의 고전에 대한 독해력, (2) 제시문들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능력, (3)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의 상황에 적용하고 평가하는 능력.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1.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 기준 1	<p>(3) 서양윤리사상 서양의 다양한 윤리사상에 대해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비교·대조하고 탐구함으로써 그 사상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서양윤리사상이 현대 한국인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성찰한다.(57쪽) [12윤사03-01]</p> <p>서양윤리사상의 연원으로서 고대 그리스 사상과 헤브라이즘을 살펴보고, 소피스트의 윤리사상과 소크라테스의 윤리사상을 비교하여 윤리적 상대주의와 윤리적 보편주의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57쪽)</p>	<p>제시문 (가) 문제 2</p>
성취 기준 2	<p>(4) 사회사상 국가, 시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평화 등의 주요 개념들을 중심으로 사회사상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동·서양의 다양한 이상사회론을 조사·탐구함으로써 윤리적 삶을 위한 바람직한 이념적 시각은 어떠한 것인지 성찰한다.(59쪽) [12윤사04-04]</p> <p>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원과 근대 자유민주주의를 탐구하고, 참여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 등 현대 민주주의 사상들이 제시하는 가치 규범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자세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59쪽)</p>	<p>제시문 (나) (다) 문제 2</p>

관련 성취기준

2.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정치와 법		관련
성취 기준 1	<p>(3) 정치과정과 참여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치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의의와 유형을 탐구한다.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선거 제도의 방향에 대해서 탐색한다. 또한 다양한 정치 주체의 역할을 이해하고, 시민 참여의 구체적인 방법을 탐색한다.(235쪽) [12정법03-02]</p> <p>대의제에서 선거의 중요성과 선거 제도의 유형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한다.(235쪽)</p>	<p>제시문 (가) (나) (다) 문제 2</p>
과목명: 세계사		관련
성취 기준 1	<p>(4) 유럽·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문화, 그리스도교, 게르만족 등의 요인을 중심으로 유럽 세계의 형성 과정을 살펴본다. 유럽 봉건 사회의 성립과 변화 모습을 통해 이 시기의 역동적인 역사상을 파악한다. 신항로 개척 이후 유럽의 흥기를</p>	<p>제시문 (가) (나) (다) 문제</p>

	<p>탐구하고, 시민 혁명과 산업 혁명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해석한다.(212쪽) [12세사04-01]</p> <p>- 그리스·로마 문명의 특징을 이해하고, 고대 지중해 세계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 탐구한다.(213쪽)</p> <p>- (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 그리스·로마의 정치 제도와 오늘날 민주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213쪽)</p>	2
--	--	---

나) 자료 출처 -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국가	플라톤	서광	2005	401-405	제시문(가)	×
대의정부론(현대민주주의론1)	J. S. 밀	창작과비평사	1992	177-183	제시문(나)	○
공론화위원회와 민주주의(법과정책연구)	이상명	법과정책연구 19집1호	2019	4-5, 16-17	제시문(다)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윤리와사상	황인표 외	교학사	2019	99-102	제시문(가)	×
고등학교 윤리와사상	변순용 외	천재교과서	2019	187-194	제시문(가), (나), (다)	×
고등학교 정치와법	이경호 외	미래엔	2019	16-18	제시문(나), (다)	×
고등학교 정치와법	서범석 외	지학사	2019	15-17	제시문(나), (다)	×
고등학교 세계사	김덕수 외	천재교육	2018	116-117	제시문(가)	×
고등학교 세계사	최준채 외	미래엔	2018	147	제시문(나)	×

5. 문항 해설

- 이 문항은 고대 직접민주주의에서 근대 대의제민주주의 각각의 한계를 논하고 있는 두 편의 글(제시문 <가>와 <나>)를 읽고 그 논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적으로 서술한 후, <나>의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시문 <다>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문항임.

- <가>의 저자(플라톤)는 소크라테스의 이름을 빌려서 교육에서 환경의 영향을 논하면서, 철학자의 성향을 타고난 사람일지라도 다중(다수)의 의지와 선호에 길들여질 것이라는 보기를 제시한다. 소피스트들은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기보다는 다중(다수)의 도그마를 정당화하는 지식을 생산하고 교육할 뿐이므로, 형식적으로 소피스트가 교사의 역할을 수행할지라도 실제로는 다중(다수)이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다중(다수)의 위력은 교육뿐만 아니라 민회와 법정 같은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 제도에서 다수의 견해만을 진실로 규정하고 소수의 견해를 억압하는 데도 발휘된다.

- <나>의 저자(J. S. 밀)는 선거권 확대에 따라 대의기구가 특정 계급의 대표로만 구성되는 현대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대안으로 지성과 능력을 갖춘 소수의 인물을 의회에 진출시키는 혼합 대의제를 제시한다. 연단이 개방되어 유능한 인물의 견해가 반영될 수 있었던 고대 직접민주주의와 달리, 현대 대의제는 민중의 선호에 의해 민중 계급의 대표로만 구성되어 소수의 우수한 견해를 펼칠 수조차 없다는 한계가 있다. 대의제 구성 방식을 수정하여 지성적인 인물이 비례대표로 소수라도 의회에 진출하게 되면, 이들이 심의와 토론을 통해서 평범한 수준의 의원들이 다수 여론의 압력을 이겨내고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 <다>는 공론조사의 원리와 방법, 그리고 한계를 다룬 설명문이다. 일회적으로 다수의 견해를 파악하는 여론조사와 달리, 공론조사는 체계적으로 표집된 시민참여단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토론한 바탕으로 공론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주목하는 조사기법이다. 공론조사는 전문가와 정부가 아닌 일반 시민이 정책결정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평등’ 조건을, 일반 시민도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제를 갖는다는 점에서 ‘숙의’ 조건을 충족하여, 현대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	<p>【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 찾기】 (4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제시문의 내용에 관한 독해력과 각각의 역사와 원리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탁월함. • 두 제시문을 읽고 둘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는 능력이 탁월함. (단순 내용 나열이 아니라, 저자 생각의 전제를 찾아내서 분석해야 함) • 예시답안의 전반부 참조. • Key Word : 제시문 <가> 다중(다수)의 위력, 전문가(교사)와 다중(다수)의 관계, 민회 제시문 <나> 대의제와 선거권 확대, 다수인 민중계급의 의식 독점, 민주주의에서 다수 여론에 의한 소수 견해의 억압, 교육받은 소수, 단순 대표제와 비례대표제. • 답안 구성 요소 ① <가>와 <나>의 공통점 서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와 <나>는 고대 직접민주주의와 현대 대의민주주의는 모두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따라 (틀릴 수도 있는) 다수의 견해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것과 다른 (소수의) 견해를 펼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는 점과 민중이 우수한 견해를 만들거나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점에서 일치한다. ② <가>와 <나>의 차이점 서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는 광장의 연설을 통해 견해가 표현되고 결집되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이 다수의 위력을 증폭시켜 지식과 믿음의 영역까지 지배하여 (진리 탐구 가능성이 봉쇄되어) 다수의 견해에 맞설 방법이 없고 그런 까닭에 진리와 정의의 편에 서야 할 지식인조차 다중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고 보는 반면에, <나>는 선거권 확대 	1등급

에 따라 평범한 수준의 다수 견해가 의회를 지배할지라도 소수의 지적인 인물이 의회에 진출해서 속의 과정에서 영향을 발휘하여 다수가 여론의 압력을 이겨내고 합리적이고 올바른 견해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나>의 문제 찾기】 (20%)

- <나>에 제기된 문제점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기초해서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탁월함.
- 대의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비례대표제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이 기존 민주주의의 원리와 목적을 어떤 점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지를 추론하는 능력이 탁월함.
- 예시답안의 중반부 참조
- Key Word : 단순 대의제의 한계, 대안으로서 비례대표제, 대의제의 실패.
- 답안 구성 요소

③ 선거권 확대 이후 단순 대의제의 문제점 제시

- 대의제는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대표가 모여서 논의하여 합리적 결정을 내리기 위한 민주주의 제도이지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있다. 하나는 사실상 하나의 계급(민중)의 견해만 대표된다는 점에서 선거제의 문제점이고, 다른 하나는 선출된 대표들이 다른 견해에 대한 고려나 더 우수한 대안의 존재에 관한 속의 없이 단지 다수 여론을 따르게 되는 의사결정의 문제점이다.

④ 교육받은 소수의 비례대표 진출 이후의 문제점의 원리적 추론

- <나>는 교육받은 소수를 비례대표로 의회에 진출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끌어내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표가 자신을 선출한 계급이나 집단의 이익과 견해를 대표하지 못하고 엘리트의 견해를 과잉 반영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엘리트의 한 견해가 속의 과정을 주도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

【극복 방안으로서 <다>의 평가】 (40%)

- <다>의 공론조사 방식을 통해서 그 작동방식을 이해하고, 핵심 평가기준을 찾아 냈음.
- <나>의 문제점을 <다>의 원리와 방식에 적용하여 극복 가능성을 평가한 내용이 탁월함.
- 예시답안의 후반부 참조.
- Key Word : 공론조사, 속의민주주의, 정치적 평등, 속의에 의한 태도변화.
- 답안 구성 요소

⑤ 해결방안 1 - 정치적 평등 조건 충족

- 공론조사의 시민참여단이 성, 연령, 지역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대표하게 하고 또 그들이 모두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하여 결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평등' 조건을 충족시킨다.

⑥ 해결방안 2 - 속의를 통한 견해 변화와 이를 통해 다수 여론 영향력 극복

- 공론조사에서 시민은 갈등 사안의 찬반 양측 전문가의 설명 등을 통해서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소집단 토론 등을 통한 속의 과정을 거치면서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 여론의 영향력을 극복할 수 있다.

⑦ 해결방안 3 - 대의제의 실패 및 전문가주의와 관료제의 확산 추세를 극복

- 관료제와 전문가주의에 의해 시민과 민중의 견해가 제대로 표출되거나 대의되지 못하는 현재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에서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생생한 견해를 결집하고 이를 통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⑧ 한계 - 공론조사는 상시가 아닌 갈등 사안에 대해서만 임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과 선출된 대표가 아닌 시민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대의제 실패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활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 1등급 <채점 기준>

- 위 세부 답안 구성 요소(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를 모두 충족한 경우이면서, 논술의 구조적 완결성과 표현 능력이 우수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을 모두 충족했는데, 논술의 완결성이 조금 부족하거나 표현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가운데 6개 이상을 충족하고, 논술의 구조적 완결성과 표현 능력이 우수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가운데 6개 이상을 충족했으나, 논술의 구조적 완결성과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가운데 4~5개를 충족하고, 논술의 구조적 완결성과 표현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가운데 4~5개를 충족하고, 논술의 구조적 완결성과 표현 능력이 확연히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가운데 2~3개를 충족하고, 논술을 형식적으로 완결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가운데 2~3개를 충족했으나, 논술을 형식적으로 완결하지 못한 경우	8등급
답안의 완성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분량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9등급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7. 예시 답안

<가>와 <나>는 민주주의 정치에서 다수 견해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다른 견해 또는 소수의 견해가 억압되는 것을 우려하고, 민중의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점에서 일치한다. 하지만, 그 진단과 대안 제시에서 차이가 있다. <가>는 광장의 연설을 통해 여론이 결집되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이 다수의 위력을 증폭시켜 지식과 믿음의 영역까지 지배하는 까닭에 지식인조차 다중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고 보는 반면에, <나>는 민중의 다수 여론을 통해 의회를 지배할지라도 지식인이 의회에 진출해서 심의 과정에서 영향을 발휘하여 다수의 생각을 바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의 대의제에는 하나의 계급(민중)의 견해만 대표되는 선거제도상의 문제점과 선출된 대표들이 다른 견해나 우수한 대안에 관한 숙의 없이 단지 다수 여론을 따르게 되는 의사결정상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있다. 그 대안으로 <나>는 교육받은 소수를 비례대표로 의회에 진출시켜 합리적 의사결정을 끌어내는 선거제 변화를 제안했는데, 이 경우에도 대표가 자신을 선출한 계급이나 집단의 이익과 견해를 대표하지 못하고 심의를 주도하는 엘리트의 견해를 과잉 반영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의 공론조사는 세 가지 점에서 <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첫째, 시민참여단이 성, 연령, 지역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집되어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대표하게 하고 또 그들이 모두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하여 결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평등’ 조건을 충족시킨다. 둘째, 갈등 사안의 찬반 양측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서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받고 소집단 토론을 통한 숙의 과정을 통해 다수의 횡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셋째, 시민의 견해를 정부에 전달하여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공론조사는 상시가 아닌 갈등 사안에 대해서만 임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과 선출된 대표가 아닌 시민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대의제 실패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활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1,008자)